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확보 총력

남원시, 후계농업인·농업전문인력양성 등 52개 분야 1179억원 신청

남원시는 남원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3월 6일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농정심의회를 심의위원(위원장 시장) 및 관계공무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2월 10일까지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을 신청 받은 결과 전년도 신청 예산 1,126억원보다 53억원이 증가한 1,179억원이 신청되었다. 신청액을 분야별로 보면 농업인 직접 시행하는 자율사업이 26개분야 510억원,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26개분야 669억원이다.

주요 분야별 신청내용을 보면 후계 농업인 등 농업전문인력양성 및 신기술보급과 경영 능력 향상에 267억원,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확충 및 농지규모화 촉진에 655억원, 과수·원예의 고품질 생산과 조식료 생산·이용 및 축산경쟁력강화 등 원예 축산분야에 184억원, 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개선 및 고품질생산에 73억원 등이다.

남원시에서는 신청된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남원시 농업농

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최종 적정성을 심의하였고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심의한 예산 신청액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과 내년 정부예산으로 확정되면 2018년도에 사업 분야별로 시행하게 된다.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 부도를 통해 신청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여 갈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의료급여사례관리 재정안정화 기여

3억여원 진료비 절감... 고령 독거노인 전화 상담 등

임실군의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의료급여수급자 중 의뢰기관 과다 이용자에 대한 집중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의뢰기관 이용횟수가 줄었고, 의료급여도 감소하면서 3억여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뢰기관 이용빈도가 불합리적으로 많고, 장기입원 등 의료급여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의

료급여 사례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임실군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는 300여명이며,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730여명이다.

군은 이들 중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와 고위험·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업을 전개해 효율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급여수급자 중 고령 독거노인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찾아가는 일대일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화 상담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및 노인복지·사회복지시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갖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예방하는 의료급여의 적절한 이용과 진료비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의료급여일수 절감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화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전년대비 의료급여 사용일수 및 기관부담금 절감자 10명을 선정해 건강관리용품을 지급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가 자발적으로 의뢰기관을 올바르게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낭비되는 의료급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지속적인 맞춤형 사례관리로 의료급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안전신문고 서비스 활성화

안전신문고 앱 활용 신고·접수·처리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국민안전처에서 개발·추진 중인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란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보행·교통안전, 생활주변 취약시설물 등에서 발견되는 안전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신고·해결하는 시스템이다.

시민들이 평소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느낀 사항을 어느 부서의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사진 찍고 위치내용 입력해서 전송)하면 신고가 완료되며, 이렇게 접수된 신고는 각 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된다.

남원시는 특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17.2.1~3.31) 안전신문고를 집중 홍보하고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은 물론 학교 가정통신문, 각종 캠페인·

교육 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읍면동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정비, 봉사단을 중심으로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인정되며(하루 4시간, 최대 15시간 인정, 17.3.31.까지) 연말에는 안전신고 우수자에게 포상이 주어진다.

/남원=유영철 기자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자"

임실군, 농업인대학 특화작목육성·6차산업 활성화 교육

"임실 농업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갈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이 되겠습니다"

7일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장에서 열린 임실군 농업인대학 입학식에는 전문농업경영인이 되기 위한 새내기 신입생들의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입학식은 심민 임실군수의 축사와 함께 임용택 한국추임새문화원장의 특강을 비롯해 대학생들이 알아야 할 학사일정과 규정, 운영방안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진행됐다.

임용택 문화원장은 이날 '가슴 뛰는 농민, 가슴 뛰는 삶'이라는 주제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민들의 뜨겁고 열정적인 삶 속에서의 감동적인 농업 이야기를 선사했다.

올해 임실군 농업인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모두 68명. 이들은 특화작목육성 교육을 받기 위한 버섯반과 6차산업 활성화 전문반인

생활농업반 2개반으로 나뉘어 교육을 받는다.

이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25회에 걸쳐 100시간 이상에 걸쳐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대학 교수진과 농업 관련 명강사를 초빙해 매주 1회 4차례씩 과정별 전문이론과 실습교육,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대학은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귀농·귀촌 농업인들의 높은 의식수준과 향토농업인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농업인 대학과정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임실농업의 발전적인 미래를 이끌어가는 전문농업경영인이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뜻을 향해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 개강한 임실군 농업인대학은 현재까지 17개 과정 57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가 2017년도 독수리(Fal Eagle·FE) 훈련 실시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7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장인 박우정 군수와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FE연습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의 대남 도발 전망에 대한 동영상 시청과 연습 지원을 위한 군과 각 읍·면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고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부대의 통합방위태세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고창군통합방위협의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회를 개최하여 지역안보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농촌지도자회, 한마음 대회

순창군 농촌지도자회 회원 80여명이 7일 구례 자연드림 파크에서 한마음 대회를 열고 지역 리더로서 역량 갖추기에 나섰다.

이번 한마음 대회는 최근 아이클 생협 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농촌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 구례 자연드림 파크에서 관계자로부터 아이클 생협 운영 현황을 듣고 과자, 라면, 만두, 베이커리 등의 생산과정을 견학해 참석자들이 농촌에 발전 방향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또 최경주 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 및 유기농업학회 부회장으로부터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도 진행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방안 토의 및 의식 개선 교육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및 폐비닐, 농약 빈병 수거 교육도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장면, 산불없는 마을 만들기

고창군(군수 박우정) 무장면이 산불 없는 마을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장면은 7일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과치제와 사미마을 뒷산 인근 농경지 등 불철 산불취약지 17개소에 대해 산불요인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산불예방작업은 무장면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마을주민,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무장 119안전센터에서는 진화차량을 대기시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한편 무장면은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하는 산불이 30%이상을 차지해 합부로 소각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과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 도입

순창군이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에 체납징수에 본격 나섰다.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 시스템'이란 차량 이동 중 실시간 촬영 영상을 통해 체납자 확인과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자동차에는 물론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차량을 상대로 번호판 영치활동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은 올해 2월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가동을 거쳐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에 돌입했다.

군은 주요 도로변, 주택가, 주차장

등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2회이상 정기적인 관내 영치활동 확행으로 체납세금을 일소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3월말까지 제1분기 체납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 체납자료 전수 조사 및 정밀 분석 진행과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 공매, 영치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건실한 자주재원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6년말 순창군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9억4천만원이며, 그중 자동차 체납은 36.4%인 3억4천만원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